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9월 29일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전사자의 어머니와 가족의 날을 선포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군에서 복무하던 중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어머니와 가족의 희생을 기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오늘 2013년 9월 29일을 뉴욕주의 전사자의 어머니와 가족의 날로 지정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1936년 이후, 9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의회에서 전사자 어머니의 날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2차대전 당시, 군속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 창문에 깃발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깃발은 군대에 나가 싸우는 가족을 위해 파란색 별이 그려진 바탕에 빨간색으로 테를 두른 배너였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전투 작전 중에 사망할 경우 파란색 별을 금색 별로 바꿔 달았습니다.

"가족 이상으로 전쟁이 남긴 댓가를 체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을 미군으로 복무 중인 가족을 잃은 전사자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로 정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추모의 날인 오늘 뉴욕주는 전장으로 나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분께 경의를 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그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한 이분들의 희생에 영원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전사자의 어머니와 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이 연례 행사에 함께 하며, 이 특별한 날에 주정부 건물에 미국 성조기를 날리는 전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의 전사자의 어머니와 가족들에 대한 공감, 감사, 존경의 마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뉴욕 주민들이 이 깃발을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전사자의 어머니와 가족의 날 선포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